



# TROPHY

Korea Wine Challenge 2022  
Award Winning Wines

## TROPHY RED

Volver Cuvee 2017 / Bodegas Volver

## TROPHY WHITE

Estate Chardonnay 2020 / Bodegas Y Viñenos Pascual Toso S.A.

## TROPHY ROSE

Los Vascos Rose 2021 / VIÑA Los Vascos

## TROPHY FORTIFIED

Encostas da Arrábida Moscatel Roxo 2014 / Cooperativa Agrícola Sto. Isidro de Pegões

## TROPHY SPARK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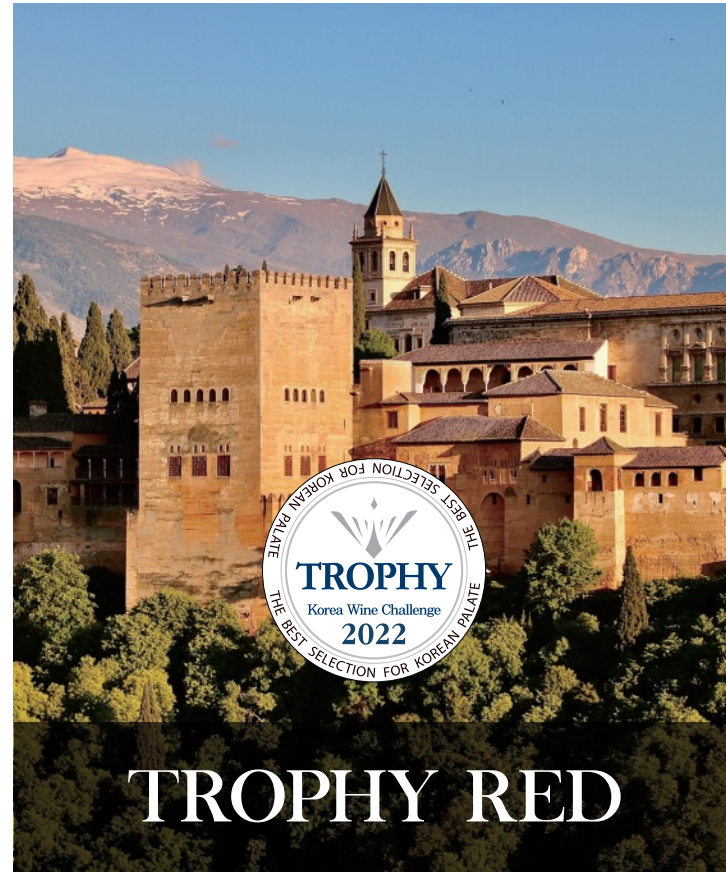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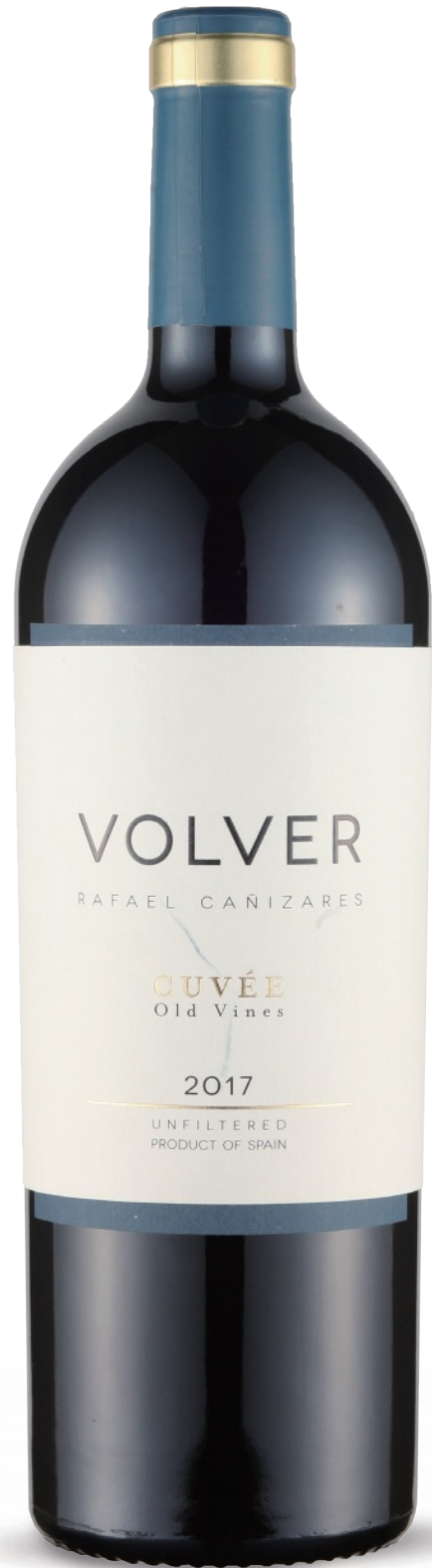
William Deutz 2013 / Champagne Deutz

## TROPHY SWEET

De Bortoli Vat 5 Botrytis Semillon 2018 / De Bortoli Wines Pty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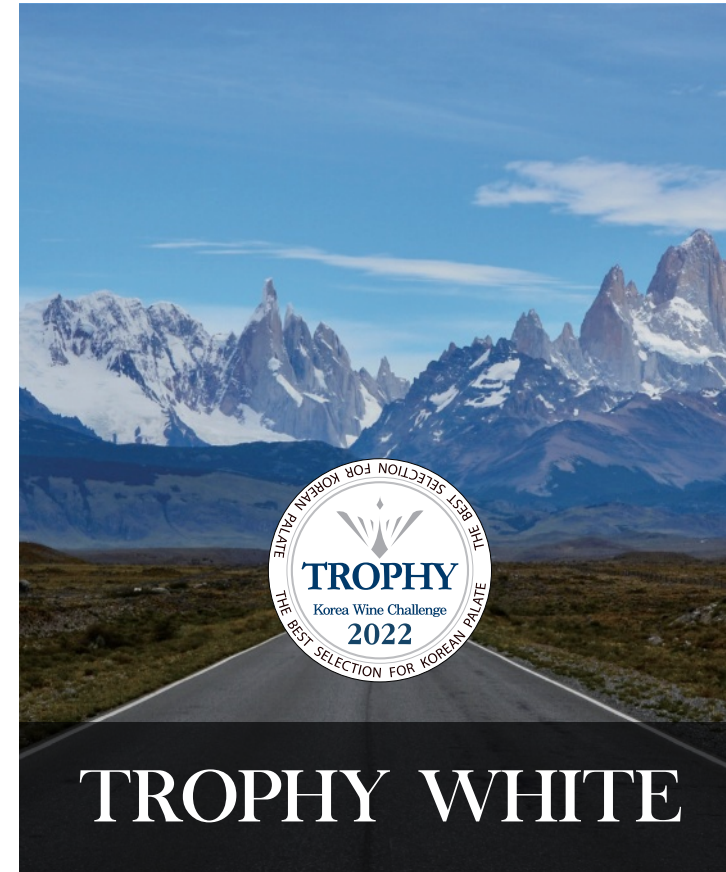


## TROPHY RED

### Volver Cuvée 볼베르 퀴베

품종 템프라니요 80%, 까베르네 소비뇽 20%  
빈티지 2017 와이너리 Bodegas Volver 국가 스페인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매우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며, 스페인 와인의 저력을 보여준 볼베르 퀴베가 트로피 레드 영광을 차지했다. 볼베르 퀴베의 포도 나무는 가지치기부터 숙성 및 수확 단계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신중하게 모니터 되고, 오직 최상의 포도나무에서 자란 포도만이 와인 제조에 선택된다. 진하고 깊은 붉은색의 체리 빛으로 농익은 과실향이 강하게 피어오르며 초콜릿, 훈제 그리고 달콤한 향신료의 아로마를 느낄 수 있다. 실키하면서도 타닌과 어우러지는 밸런스가 훌륭하다. 탄탄한 구조감과 더불어 달콤한 과실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으며 긴 피니쉬가 인상적이다. 한 시간 정도 디캔팅한 후 마시면 더욱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 TROPHY WH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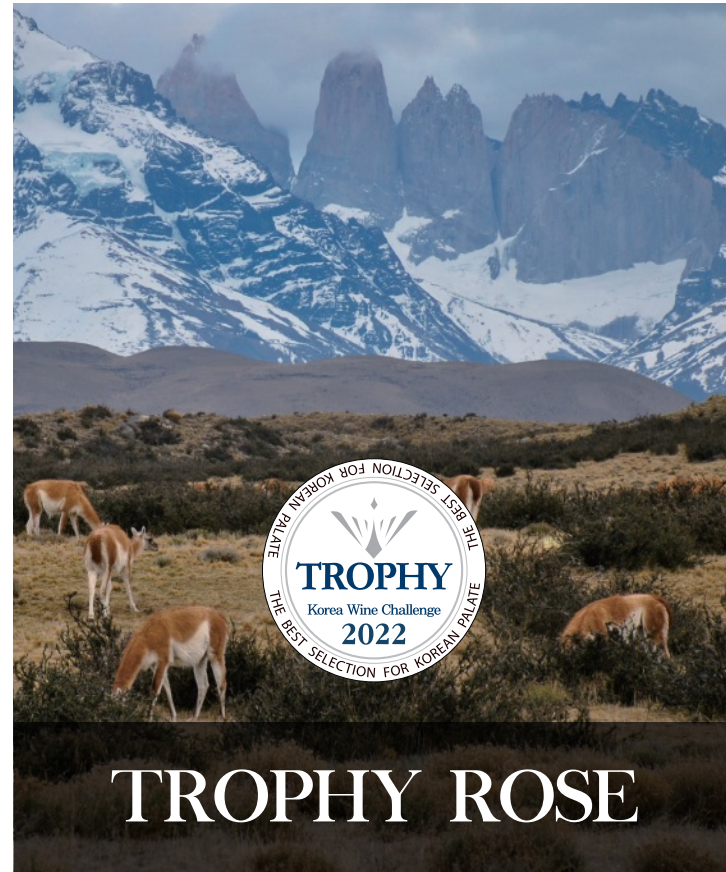
### Estate Chardonnay 에스테이트 샤르도네

품종 샤르도네 100% 빈티지 2020  
와이너리 Bodegas Y Viñenos Pascual Toso S.A. 국가 아르헨티나  
수입사 까사데멘도사

아르헨티나의 와인이 수 많은 화이트 와인들을 제치고 1위의 영예를 얻었다. 그 영예의 주인공은 아르헨티나 전문 수입사 까사데멘도사에서 수입하는 파스칼 토소의 에스테이트 샤르도네이다. 파스칼 토소는 고향인 이탈리아 피에몬테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여 1890년부터 와인농장을 시작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원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테이트 샤르도네에서는 잘 익은 청사과, 파인애플, 망고 등의 열대 과일, 토스트와 버터의 향이 느껴진다. 상큼하고 짜릿한 산미와 입안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적당한 유질감, 끝 맛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오크와 미네랄리티, 훌륭한 균형감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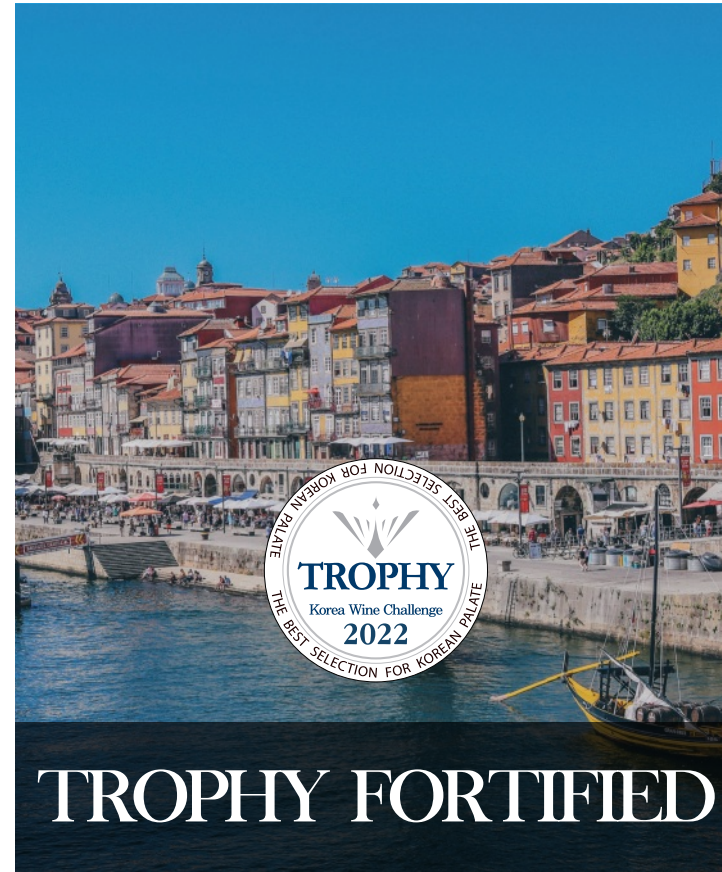
## TROPHY ROSE

### Los Vascos Rose

로스 바스코스 로제

품종 시라 60%, 까베르네 소비뇽 30%, 무르베드르 10%  
빈티지 2021 와이너리 VIÑA Los Vascos 국가 칠레  
수입사 인터티커

트로피 로제는 칠레의 로스 바스코스 로제가 수상했다. 로스바스코스는 칠레 고유의 페루아와 DBR 라피트 그룹의 품격과 노하우가 반영된 와인 브랜드이다. 로스 바스코스 와인들은 칠레 고유의 특성 및 선조들의 노하우와 DBR 라피트의 최신 기술, 섬세함, 정확성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와인으로 높은 명성을 자랑한다. 러블리한 핑크 컬러에 상큼한 과일향과 프레시함이 살아 있는 로스 바스코스 로제는 와인 초보나 여성들에게 크게 어필하며 브런치나 피크닉에도 완벽하게 매칭되는 와인이다. 과일 본연의 깨끗한 미감과 풍부한 아로마들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저온 발효 숙성 후 출시한다.



## TROPHY FORTIFIED

### Encostas da Arrábida Moscatel Rox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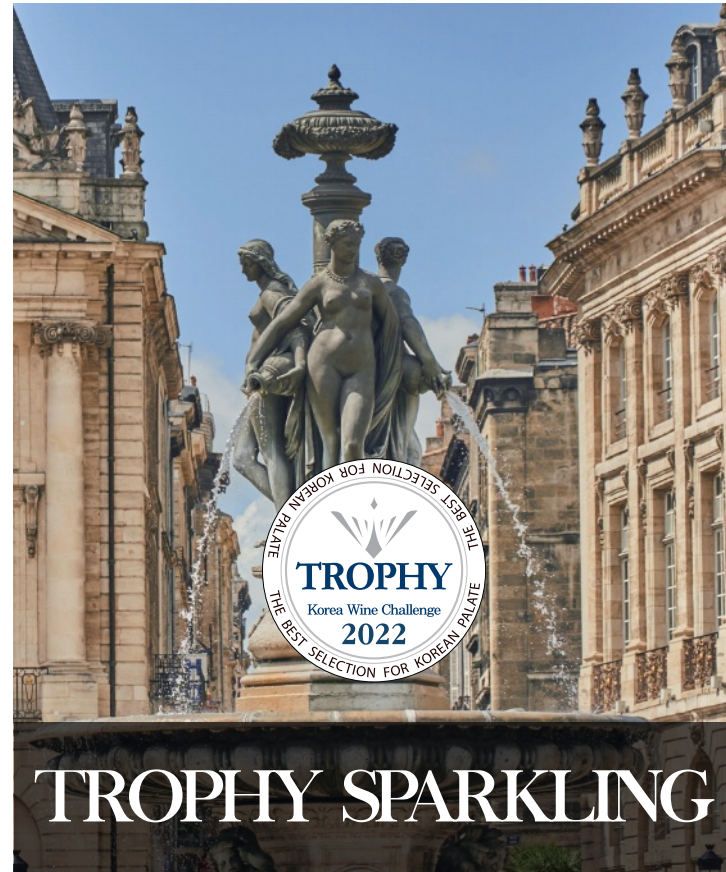
엔코스타스 다 아라비다 모스카텔 록소

품종 모스카텔 록소 100% 빈티지 2014  
와이너리 Cooperativa Agrícola Sto. Isidro de Pegões 국가 포르투갈  
수입사 나루글로벌

포르투갈 와인이 역시 주정강화에서는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엔코스타스 다 아라비다 모스카텔 록소의 중요한 특질은 매우 뛰어난 기후 조건으로 부터 온다. 그들의 페루아는 지중해와 대서양의 근접성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한 영향으로 와인이 발휘하는 완벽한 조화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놀라운 품질의 와인을 제공한다.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 덕분에 포르투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명성을 쌓아왔다. 매우 강렬하면서도 오렌지와 꿀 등의 복합적인 아로마가 인상적이며 혀에서 느껴지는 좋은 산도와 구조감, 단 맛과 함께 오는 긴 여운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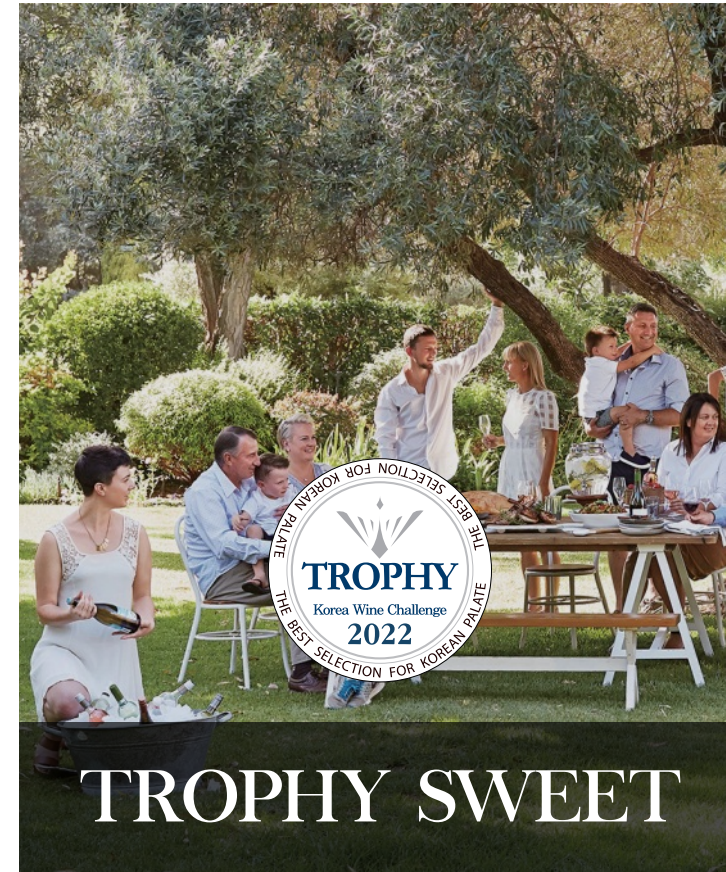


## TROPHY SPARKLING

### William Deutz 윌리엄 도츠

품종 피노 누아 77%, 샤르도네 20%, 피노 뮌에 3% 빈티지 2013  
와이너리 Champagne Deutz 국가 프랑스 수입사 레방드매일

스파클링 부문에서는 역시 샴페인이 저력을 보여줬다. 국내 소비자들에 게도 잘 알려진 와이너리 도츠는 1838년 무역상이었던 윌리엄 도츠와 샴페인 판매상 피에르 켈더만에 의해 설립되었다. 포도밭의 85%가 그랑크뤼와 프리미에 크뤼로 이루어져 있으며, NV부터 법으로 정해진 최소 숙성기간인 15개월보다 긴 36개월 숙성을 하며 정성을 들인다. 밝고 선명한 황금빛을 띠며 복숭아, 살구 및 자두, 화이트 체리 등이 결합된 향과 함께 아몬드 무게감이 있는 부케가 피어 오른다. 입 안에서 흰 과일의 섬세한 향과 부드러운 산도가 시원하게 어우러지는 와인이다. 뛰어난 빈티지 샴페인으로서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 TROPHY SWEET

### De Bortoli Deen Vat 5 Botrytis Semillon

디 보톨리 딘 바트 5 보트리티스 세미옹

품종 세미옹 100% 빈티지 2018 와이너리 De Bortoli Wines Pty Ltd  
국가 호주 수입사 아베크와인

작년 KWC에 이어서 올해에도 최고의 스위트 와인임을 증명하는 기쁨을 토했다. 디 보톨리는 1928년 비포리오와 귀세피나 디 보톨리에 의해 설립된 후 지금까지 3대에 걸쳐 가족 경영되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수석 와인메이커인 스티브 웨버는 디테일이 잘 살아있고 질감과 미네랄리티가 느껴지는 와인 양조를 위해 테루아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놀라운 신선함과 훌륭한 맛, 감칠맛 나는 복합성을 지닌 스위트 와인인 디 보톨리의 딘 바트 5 보트리티스 세미옹은 풍부하고 진한 맛을 보여 주며, 산뜻한 산도가 입안에 깔끔함을 더한다. 단맛과 함께 섬세한 질감과 안정감 있는 밸런스를 보이며 KWC에서 2년 연속 트로피 스위트를 차지했다.

